



KOREAN B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B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B – NIVEL SUPERIOR – PRUEBA 1

Friday 21 May 2010 (afternoon)
Vendredi 21 mai 2010 (après-midi)
Viernes 21 de mayo de 2010 (tarde)

1 h 30 m

TEXT BOOKLET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booklet until instructed to do so.
- This booklet contains all of the texts required for Paper 1.
- Answer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 and Answer Booklet provided.

LIVRET DE TEXTES –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 livret avant d'y être autorisé(e).
- Ce livret contient tous les textes nécessaires à l'Épreuve 1.
- Répondez à toutes les questions dans le livret de questions et réponses fourni.

CUADERNO DE TEXTOS –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e cuaderno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te cuaderno contiene todos los textos para la Prueba 1.
- Conteste todas las preguntas en el cuaderno de preguntas y respuestas.

본문 A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이렇게 이용하세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가능하며, 온라인은 물론 전화상담 (1588-9142)의 문도 열려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만 15 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구직신청부터 구인 기업검색 등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하거나 다른 기관에 연계해서 상담할 수 있는데, 취업알선, 직업훈련, 사후관리를 해 준다.

창업 지원 서비스는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컨설턴트, 법무사, 변호사 등 100 명의 전문가와의 심층상담이 가능하며, 상담분야는 일반 창업과 기술 창업, 자금 분야 등이며 창업보육센터 프로그램도 안내한다. 심층 상담 비용은 1-2 회는 무료이고, 3-4 회는 5 만원, 5 회 이상은 15 만원이다. 단순상담은 상담결과를 확인해 주고, 심층상담은 상담 후의 사후지원까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구인업체에는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회원으로 등록하면 구인신청, 채용광고, 인재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위치: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5층
운영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토, 일, 공휴일은 휴무)
찾아가는 길: 지하철 1,2 호선 시청역 4번 출구
지하철 5 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문의: 1588-9142 (<http://job.seoul.go.kr>)

<서울시 팜프렛> 2008

본문 B

인터넷 TV 의 상용화

인터넷티비 상용화 앞두고 [- 11 -] 난항

- ① 지난 11 월 17 일 KT 에 의해 국내 첫인터넷 티비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 중 하나로 손꼽혀 왔던 인터넷티비는 방송계와 통신계의 알력과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해 그동안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그러나 최근 공중파 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을 포함한 상용화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뉴미디어로서의 인터넷티비 시대가 / - X - / 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②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방송데이터를 전송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티비 수신용 안테나처럼 주파수를 통해 드라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망을 통해 디지털화된 드라마 데이터를 수신해서 보는 것이다. 이는 또한 기존 케이블망을 통해 시청하던 것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교체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방송 서비스가 아니다. 방송 프로그램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데이터화해서 보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시청자들은 보는 서비스를 벗어나 직접 참여를 통해 능동적 서비스 이용자로 변할 것이다. 올해 국내 통신시장에서는 유선과 무선의 융합에 따른 통신 결합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런 서비스는 “초고속 인터넷+이동전화+인터넷 전화+인터넷티비”등을 [- 12 -] 판매하며 개별 서비스요금을 할인해 주는 마케팅 방식을 택하고 있다.
- ③ 인터넷 티비는 고용창출 및 관련 산업과급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지부진하던 인터넷 티비상용화에 힘을 신기 시작했다. 방송산업을 담당했던 방송위원회와 통신 산업을 주관했던 정보통신부가 통폐합되었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자, 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인터넷티비의 2009 년 상용화 로드맵 이행에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렇게 국내 첫 인터넷티비 상용서비스가 시장에 출현했다.
- ④ 이는 침체된 통신 산업에 새 바람을 일으킬 일대 사건이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 부분 남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기술적으로는 대부분 해결된 상태이지만 상용화에 가장 큰 걸림돌은 콘텐츠(방송 프로그램) 수급 문제였다. 문제는 인터넷 티비를 경쟁자로 보는 방송업계의 분위기 탓에 원활한 콘텐츠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상파를 제외한 전용프로그램도 부족한 상황이다. 케이블 티비가 150 여 개의 채널 수를 확보하고 전국 서비스를 하는 데 비해 KT 가 확보한 채널은 30 여 개에 불과하다.
- ⑤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은 지방에서는 이용하기 힘든 [- 13 -] 서비스라는 점이다. 어렵게 지상파 방송국과 계약을 맺었지만 각 지역 방송사와의 합의 무산으로 수도권에서만 방영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 티비의 기반이 되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현황도 단기적으로 볼 때 전국 서비스가 힘든 상황이다. 업계는 전국 서비스 지원망 구축에는 3-4 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사저널 2008

본문 C

청구회 추억

- ① 나는 어린이의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중요한 것은 ‘첫 대화’를 무사히 마치는 일이다.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은 서로의 거리를 때에 따라서는 몇 년씩이나 당겨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꼬마들에게 던지는 첫마디는 반드시 대답을 구하는, 그리고 대답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애, 너 이름이 뭐냐?”라는 첫마디를 던진다면 그들로서는 우선 대답해 줄 필요를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는 불쾌감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뱅글뱅글 돌아가기만 할 뿐 결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대답을 필요로 하는 질문을, 그리고 어린이들이 가장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놀림의 느낌이 전혀 없는 질문을 궁리하여 말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 ② 이미 그들은 내가 그들 쪽으로 옮겨오고 있음을 알고 제법 긴장들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걸음걸이가 조금 빨라지고 자주 나를 돌아다보는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예상**을 뒤엎고 그들을 앞질러버릴 때까지 말을 건네지 않고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저쪽 산기슭의 양지에는 벌써 진달래가 피어 있었다. 나는 문득 생각난 듯이 꼬마들 쪽으로 돌아서며 “이 길이 서오릉 가는 길이 틀림없지?”하고 그 첫마디를 던졌다. 이 물음은 그들에게는 전혀 부담이 없는 질문이다. “예” 또는 “아니오”로써 충분한 것이며, 또 그들로 하여금 **자선의 기회**와 **금지**도 아울러 제공해주는 질문이었다.
- ③ 그들의 대답은 훨씬 친절ان 것으로 나타났다. “네, 맞아요!”가 아니라 “네, 일루 곧장 가면 서오릉이에요”였다. / - X - / “우리도 서오릉엘 가는 길이에요!” 반응은 [- 28 -] 훨씬 좋은 것이었다. 허술한 재건복 차림을 한 나에게 것처럼 친절한 반응을 보여준 것은 아마 조금전까지 나와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걷던 문학회 회원들의 말쑥하고 반반한 생김생김의 덕분이었으리라고 느껴졌다.
- ④ [- 29 -]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은 그 다음의 대화를 용이하게 해주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화가 그 다음 대목에서 뜻밖에 **경화**되어 버릴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다. [- 30 -],

“버스 종점에서 반쯤 온 셈인가?”
 “아니요. 반두 채 못 왔어요.”
 “너희들은 서오릉 근처에 살고 있는 모양이구나.”
 “아니요. 문화동에 살아요.”
 “그럼 지금 문화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나?”
 “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리든 어쩔려구.”
 “호호, 문제 없어요.”

[- 31 -] 일단 대화의 입구를 열어놓았다.

[- 32 -] 더 깊숙히 이 꼬마들의 세계 속으로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

신영복 <<청구회 추억>> 2008

본문 D

“할머니가 카메라를 좀 아시더라”

15년 간 방 송 다큐멘터리 만든 이충렬 감독 인터뷰



이충렬(43) 감독에게 <워낭소리>는 첫 번째 자식이다. 15년 동안 방송 다큐멘터리 일을 했지만, 이름을 내걸 만큼 만족스러운 작품은 없었다. <워낭소리>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올해 초에 젊은 사람들 만나 운수대통”할 것이라는 집객가 하나씩 맞아드는 것일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수상 이후 선댄스 경쟁부문 러브콜까지 이충렬 감독은 겹경사를 만끽 중이다.

교육학을 전공했다.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놀기 좋아해서 그런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뜻대로 못해서 찌꺼기가 남았나 보다. 대학 졸업 뒤 애니메이션 일을 아주 잠깐 했다. 제대로 그린 건 아니고 동화를 몇장 그려야 먹고살 수 있나 계산하다 뛰쳐나왔다. 그 뒤로 아는 선배 통해서 방송 일을 하게 됐다. 당시로서는 금기 소재였던 비전향 장기수나 성적 소수자를 이야기를 다뤄보고 싶었다. 그런데 하다보니 방영이 안되더라. 그 뒤로 쇼, 오락 프로그램, 스포츠 중계까지 안 가리고 했다.

다큐멘터리에 대한 꿈을 다시 품게 된 계기가 있다. 월급 받으니까 다큐멘터리에 대한 로망이 사라지더라. 이렇게 나이 먹다가 끝나는가 하는 강박도 있었고, 2000년경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 쌀 떨어지면 홍보영화 찍었고, 남은 돈으로 제작비에 보탬다.

시장 입구에서 FTA 반대 농민시위가 벌어지는 광경을 소 타고 노부부가 병원에 가다 물끄러미 바라보는 장면이 있다. 읍내의 일상적인 풍경이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겐 낯선 풍경이다. 구경거리인 셈이다. 사실 라디오에서 소값 폭락 등의 뉴스가 몇 차례 나오는데 좀 고민이다. 개봉 때 뽀까 싶기도 하고, 농촌의 아픈 부분들을 환기시켜야겠다 싶어 넣었는데 너무 도드라진 것 같고.

개봉 때 바뀌는 부분이 또 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중 <청춘을 돌려다오>를 빼곤 다 바뀐다. <봄날은 간다> 등은 저작권료가 너무 비싸서 결국 포기했다. 과거 천지인의 리더였고, 지금은 아나아라는 이름의 밴드를 이끄는 허훈이 전래가요를 편곡한 노래가 들어갈 것이다. 통속적인 느낌이 사라져서 느낌이 좀 다르다.

송아지가 날뛰어서 할아버지가 쓰러지는 장면을 느리게 잡은 이유는 뭔가.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하고 나도 모르게 할아버지한테 뛰어들었다. 그냥 쓰면 내가 드러나서 하는 수 없이 슬로와 스틸로 편집할 수밖에 없었다.

후반부의 인터뷰 장면은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거신 것인가. 다른 장면과 달리 정면을 바라보고 찍었던데, 소가 넘어갔다는 말을 들은 게 자정이 넘어서다. 촬영할 사람을 수배했는데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다. 결국 내가 간이조명과 카메라를 들고 가야 했다. 그래서 앵글이 서툴다. 다른 장면 들은 감정을 일정 부분 숨기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측면 샷을 많이 썼는데 그날은 그럴 여유도 없었다.

묵혀둔 소재가 있다. 원래는 종갓집 여성들을 찍어볼 요량이었었는데 혼란이 오기 시작했다. <워낭소리>보다 더 나은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잘못된, 그래서 무시해야 할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게 잘 안된다. 다만 무엇을 찍든지 일상을 천착하는 마음은 갖고 갈 것 같다.

결혼은 안 하나. 결혼하면 다큐멘터리를 포기해야 한다. 먹고살아야 하니까.

<워낭소리> 이충렬 감독 인터뷰 <시네 21> 2008